

음절이론의 영어교육적 적용*

金 順 澤**

목 차	
I. 서 론	3.3 영어의 음절 모형
II. 음절과 음운단위	IV. 영어교육에의 적용
2.1 음운단위로서의 음절	4.1 한국어의 음절구조
2.1.1 음운규칙의 영역	4.2 학습상의 문제점
2.1.2 강세의 설명	4.3 지도방안
2.1.3 분절음 배열제약	4.3.1 음성적 지도
III. 음절의 모형	4.3.2 최적 음절구조 인식
3.1 본지적 음절 모형	4.3.3 음절 구분법 지도
3.2 평면적 음절 모형	V. 결 론

I. 서 론

최근 영어의 음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음절이 음운단위가 될 수 있는지, 음절의 구조는 어떠한가, 음절화에는 어떤 원리가 따르는지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이론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음절에 대한 이론을 영어교육에 적용시켜 학습자의 발음지도상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실용적 연구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구조주의 언어학의 대조분석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두 음절구조를 비교한 연구는 많이 눈에 띄나, 그것은 주로 자음군 분석을 중심으로 음절구조만을 비교한 데 지나지 않을 뿐, 발음상 어려움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거하며 새로운 지도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연구가 마무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 본 논문은 교육부 1988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師範大學 英語教育科

따라서 본고는 영어의 음절이론을 영어교육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음절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여 영어의 발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의 음운기술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음절이 반드시 중요한 음운단위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그 음절의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야 바람직한지를 보인 후, 이같은 이론이 영어의 발음지도에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겠다.

II. 음절과 음운단위

본장에서는 음운기술의 간결성과 일반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음운현상을 Chomsky &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이하 SPE라 약함)에서처럼 분절음에 기반을 두어서는 곤란하며, 어찌까지나 그보다 상위계층인 음절에 기반을 두어 설명되어야 타당함을 지적하겠다.

2.1 음운단위로서의 음절

음절이 과연 음운론에서 음운단위가 될 수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아무래도 찬성하는 쪽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들어 Chomsky & Halle(1968) 및 Kohler(1966) 등은 음절을 음운기술에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에, Hooper(1972, 1976), Vennemann(1972, 1974)의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phonology)을 비롯하여 Kahn(1976), Kiparsky(1979), Selkirk(1982), Clements & Keyser(1983) 등의 복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 or multi-tiered phonology)에서는 모두 다 음절을 음운기술의 유용한 단위로 받아 들인다.

음절을 음운론에서 필요한 단위로 취급하는 이들 후자의 학자들은 Selkirk(1982:337)이 지적한 대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때문에 음절을 음운기술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첫째는 한 언어의 분절음 배열제약을 매우 일반적이며 설명력있게 언급하기 위해서는 발화체의 음절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둘째는 분절음운론의 광범위한 규칙들의 적용영역으로 음절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셋째는 강세 및 성조등의 초분절 음운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절음 보다는 더 큰 단위인 음절이란 단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여기서는 이 견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1) Selkirk(1982:377)은 음절을 음운단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영어에서 찾고 있는 바, 그 첫째는 한 언어의 분절음 배열제약을 가장 일반적이며 설명력 있게 언급할 때는 발화의 음절구조를 고려함으로써만이 가능하며, 둘째는 음절을 통해서만이 분절음운론의 광범위한 규칙 적용영역을 적절히 특징화 시킬 수 있으며, 셋째는 강세와 성조와 같은 초

앞서 제기한 SPE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1.1 음운규칙의 영역

우선 음절이 음운기술의 환경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위해 잠시 SPE의 음운기술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SPE는 음운현상을 설명할 때 반드시 본절음에 기반을 두어 음운기술을 한다. 예를들어 다음의 규칙 (1)과 (2)에서는 본절음을 중심으로 적절한 표기규약을 정하고 음운규칙의 적용을 통해 음성표면형을 유도한다.

$$(1) g \rightarrow \emptyset / \text{ } _ \{ \#, C \}$$

$$(2) C \rightarrow [-\text{voice}] / _ \{ \#, C \}$$

그 결과 전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 이질적인 단위인 #와 C 또는 #와 V가 마치 하나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말하자면 #와 C 또는 #와 V가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규칙 (1)과 (2)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표기규약을 정하고 그것을 마치 두개의 다른 환경의 묶임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있다. 가령 규칙 (1)에서는 g라고 하는 본절음이 어말이나 또는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음운현상을 동일한 환경의 표시가 아니라, 각각 다른 환경의 적절한 융합으로 설명하는 복잡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본절음에 중심을 두고서가 아니라 음절에 중심을 두어 음운기술을 행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와 C 또는 #와 V의 공통점은 음절경계인바, 이 기호에 해당하는 \$를 사용하여 음운규칙을 바꾸면 (1)과 (2)의 규칙은 더욱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sing과 angma등에서 g가 탈락하는 (1)의 현상과 독일어의 'Adler'와 'radle'에서 d가 무성화하는 (2)의 현상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규칙의 환경에 음절이 포함되어야 음운기술이 간결해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g가 탈락하는 음운작용인 (1)을 음절경계표시인 \$를 도입하여 규칙화 하면 이같은 사실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3) g \rightarrow \emptyset / \text{ } _ \$$$

본절 음운현상을 적절히 취급할때는 본절음은 음절크기의 단위로 구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위 규칙은 \emptyset 다음 음절경계표시 사이에서 g 가 탈락되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줌으로써 동일한 음운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환경에 의하여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분절음에 기반을 두어 음운기술을 한 (1)과 같은 SPE의 규칙체계 보다 음절에 기반을 두어 음운기술을 시도하는 (3)과 같은 입장이 훨씬 타당하다.

이같은 사실은 규칙 (2)를 볼때 더욱 명확히 입증된다. 사실 규칙 (2)는 Vennemann(1972)이 제시한 독일어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어 방언에서는 Adler 'eagle'와 radle 'I cycle'가 [adlə]와 [rad:lə]가 아니라, [atlə]와 [ra:tlə]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을 주목한다면 독일어의 어말 무성화 현상은 당연히 규칙 (2)로 공식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규칙 (2)가 완전히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단위인 #와 C가 같은 팔호속에 이절적(disjunctive)으로 묶임으로써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현상을 그 환경속에 음절이란 단위를 포함시켜 나타내면 규칙 (2)의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d 가 [t]로 변화되는 환경은 음절경계 표시인 \$ 앞에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규칙화면 더욱 간결해 진다.

(4) $C \rightarrow [-voice] / -\$$

그러므로 음운작용을 언급할 때는 그 환경속에 음절이란 단위가 내포되어야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²⁾

영어의 음운현상 중에서 음절이 규칙의 환경속에 포함됨으로써 그 과정이 더욱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예로 기식음화(aspir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종래에 음절을 음운규칙의 환경에 이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기식음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일어난다.

- (5) /p, t, k/are aspirated if and only if they
- a. stand before a stressed vowel, and
 - b. do not follow/s/.

2) Hoard(1971), Anderson(1974), Hooper(1972,1976), Vennemann(1972, 1974), Kahn(1976), Harris(1983) 등은 음운규칙의 환경 속에는 음절이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즉 무성폐쇄음 /p,t,k/는 강세모음 앞에 올 때, 그리고 동시에 /s/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럴때만 기식음화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ten과 attempt의 /t/는 기식음화를 하지만 after와 stem 및 Boston의 /t/는 기식음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위 현상 (5 a)에 해당된 것으로 위 기식음화 규칙으로는 Pacific, tomorrow, collide에서 처럼 어두의 /p,t,k/가 강세없는 모음에 의해 후속될 때에 기식음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Kahn, 1976: 42). 즉 위 단어에서 첫 /p,t,k/는 pen, ten, ken과 같은 단어들 정도의 기식음화는 되지 않으나, 기식음화 한다는 것은 틀림없음으로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 앞에서도 기식음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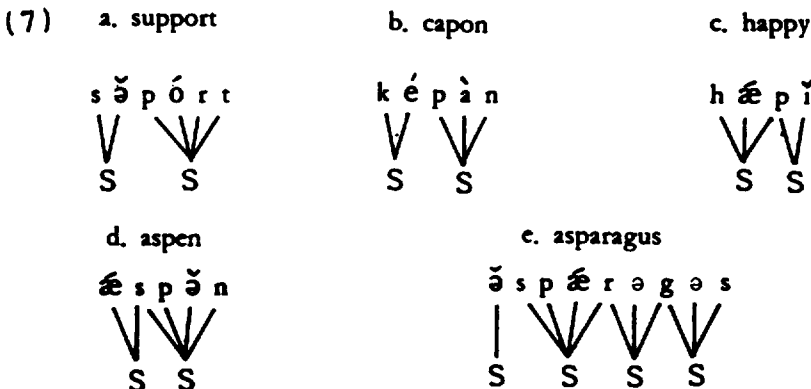
이같은 점은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태리어등 로맨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그들은 tomorrow, Pacific, collide의 /t,p,k/는 ten, pen, Ken의 파열음처럼 기식음화한다고 생각하지만, stem, spin, skin의 파열음과는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실을 고려하면 영어의 무성폐쇄음이 강세를 받는 모음 앞에서만 기식음화 한다는 언급은 수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의문점은 왜 단일 분절음 /s/가 (5 b)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s/가 영어의 음절초 자음군을 형성하는데 있어 /p,t,k/를 앞설 수 있는 유일한 자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무성파열음이 음절초에 왔을 때 기식음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제시하게 한다.

(6) /p,t,k/ are aspirated if and only if they are syllable-initial.

그래서 이 규칙은 ten, tomorrow, collide의 첫 파열음을 기식음화하게 만든다.

그러나 규칙 (6)이 그대로 좋은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검토해야 가능해 진다. 즉 Kahn(1976: 44)이 제시한 support, capon, happy, aspen, asparagus를 보자. Kahn(1976)은 이들 단어의 음절화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위 수형도를 자세히 보면, support와 capon이란 단어는 기식음화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두 단어의 /p/는 음절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spen과 asparagus의 /p/는 음절초에 오지 못하므로 기식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단어인 happy의 /p/는 어떤가. 이 단어의 /p/는 첫 음절의 말음이기도 하고 둘째 음절의 두음이기도 하다. 이는 흔히 양음절적 속성을 지닌 음(ambisyllabic)이라 불리워 지는데, 3)이 경우에는 기식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했던 기식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8) /p,t,k/ are aspirated if and only if they are both syllable-initial and non-syllable-final.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의 기식음화(aspiration) 현상은 그 환경속에 음절을 도입하여 나타내야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음절을 고려한 기식음화 설명방법은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한결 알기 쉽고 간단하게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2.1.2 강세의 설명

전절에서 필자는 영어의 여러 음운현상을 설명할 때 그 환경속에 음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절에서는 영어의 강세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SPE식 본절음 중심의 음운기술이 아니라, 음절크기의 단위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보겠다.

SPE의 강세할당의 요점은 복잡한 표기규약과 규칙순서 및 모음의 긴장성(tenseness)의 유무와 그 뒤에 자음이 어떻게 따라 오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모음과 자음의 결합관계는 약음군(weak cluster)과 강음군(strong cluster)의 개념으로 표시된다.⁴⁾

약음군이란 비긴장모음 또는 단모음과 그 뒤에 자음이 최대한 하나의 자음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check{V} 또는 \check{VC} 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음군은 긴장모음 또는 복모음과 그 뒤에 자음이 영 또는 그 이상이 연결되는 것으로 \bar{V} , \bar{VC} , \bar{VCC} 등이 이에 해당된다.

SPE의 주장세 규칙(SPE: 71참조)을 America, aroma, veranda에 적용하면 [-tense] C_0 가 약음군을 나타내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강세가 도출될 수 있다. 즉, America는 -CoVCVCo#이며, aroma는 -CoVCo#이며, veranda는 -C₂CVCo#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낱말은 Bloch & Trager(1942), Jones(1956), Pike(1967), Hockett(1955)등에 의해 interlude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4)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Chomsky & Halle(1968: 70,83,103-104) 참조.

그러나 주강세 규칙(main stress rule)을 algebra, ludicrous, eloquent에 적용하면, 잘못된 표현형을 유도하게 된다. 다시말해 주강세 규칙으로서는 끝에서 세번째가 아닌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E는 약음군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정된 주강세 규칙(SPE: 84 참조)에서처럼 $[-\text{tense}] C_0 \left[\begin{smallmatrix} \text{avoc} \\ \text{aconis} \\ \text{-ant} \end{smallmatrix} \right]_0$ 로 규정하여 끝에서 둘째 모음이 약음군의 일부인 경우에는 끝에서 세번째 모음에 강세가 오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음군을 $[-\text{tense}] V$ 또는 VC_2 로 강세를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SPE는 약음군과 강음군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잡하게 강세를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여러가지 괄호표시와 이접적 규칙순서 및 반복적 규칙적용등의 복잡한 규약을 통해 강세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음절이란 단위를 도입할 때 간단히 해결된다. 즉, America, aroma, veranda, algebra, ludicrous, eloquent등의 강세는 음절을 고려할 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강세할당과 음절경계배당과는 충분히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다. (Giegerich, 1986: 227).

이와 관련한 Kahn(1976: 85-90)의 입장을 보면, 만약 위 단어들이 끝에서 둘째 음절이 폐쇄적(closed)이라면, 그 음절에 강세가 할당되고, 개방적(open)이라면, 끝에서 세번째 음절에 강세가 배당된다. 그러므로 음절을 강세분석에 관련시켜 설명하면, veranda는 끝에서 둘째 음절이 폐쇄적이므로 강세가 바로 그 음절에 주어지며, 나머지 America, algebra, ludicrous, eloquent등은 둘째 음절이 개방적이므로 강세는 세번째 음절에 배당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Clements & Keyser(1983), Hogg & McCully(1987)를 참조하여 음절이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수정할 수 있다. 즉, 끝에서 둘째 음절이 경음절(light syllable)일 때에는 끝에서 세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며, 중음절(heavy syllable)일 때에는 바로 그 음절에 강세가 배당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⁵⁾

따라서 Hogg & McCully(1987: 31)의 지적대로, 적어도 영어의 강세에 관해서 분절음에 기반을 둔 기술방식보다는 분절음보다 더 큰 단위인 음절에 기반을 두어 기술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Fudge(1969), Anderson(1974), Lass (1984), Vincent (1986)등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5) Hulst & Smith(1982: 35)는 경음절과 중음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고 있다. 즉, 경음절은 open syllable, lax, short vowel, reduced vowel이며, 중음절은 closed syllable, tense, long vowel, full vowel이다. 이 경음절과 중음절의 문제는 운율 음운론적으로 핵이 분지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 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2.1.3 본절음 배열계약

앞에서 고찰한 두 가지 문제와 다 관련이 되는 것으로, 영어의 본절음 배열계약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본절음이나 형태소가 아니라, 음절에 기반을 두어 분석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점을 살펴 보겠다.

본절음 배열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음성구조나 음소배열론(phonotactics)을 거론하면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표준생성음운론에서도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처럼 구체적인 음성상의 제약으로 파악하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형태소 구조조건(morpheme structure condition)에 의해 기술하고 있다.⁶⁾ SPE에서는 한 언어의 어휘목록(lexicon)은 그 언어가 가지는 형태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형태소들의 음운형태에 대한 여러 제약, 즉 본절음들이 어떤 식으로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 SPE는 형태소 구조조건에 의해 가능한 음운형태가 무엇이며, 본절음들이 보다 큰 단위의 형태소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게 된다. 그러므로 SPE의 본절음 배열계약을 포착하기 위해 형태소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임의적이며 복잡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형태소 구조조건(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을 증시하여 설명하는 Chomsky & Halle(1968: 404)의 다음과 같은 유표규약(marking convention)을 보자.

$$(9) [U \text{ consonantal}] \rightarrow [^* \text{consonantal}] / \left\{ \begin{array}{l} + \\ - \end{array} \begin{array}{l} \text{vocalic} \\ \text{consonantal} \end{array} \right\} \text{---}$$

형태소를 기본으로 삼는 위 유표규약은 형태소 경계표시(morpheme boundary)인 +와 모음 다음에서 [+consonantal]이 무표적(unmarked)임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말해 Chomsky & Halle(1968)는 CVCV 연결체에서 C들이 무표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Hooper(1976: 189-190)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모음 연결체상의 C들을 위해 위에서처럼 두개의 무표적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성이 결여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현상을 형태소 경계표시와 모음 다음이라는 환경으로 나타냄으로써 간결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만약 음절이란 단위를 도입하여 기술하면 더욱 일반적이고 간결하게 언급할 수 있다. 즉, +CVCV의 연결체를 음절을 단위로 나타내면 C들이 음절초에 온다는 언급을 하면 되므로 훨씬 간단해 진다. 이를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사실 형태소 구조조건은 Stanley(1967)가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Halle(1959)의 형태소 구조규칙(morpheme structure rule)이나 Chomsky & Halle(1968)의 어휘 잉여규칙(lexical redundancy rule)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0) [u consonantal] → [+consonantal] / \$ -

따라서 형태소 경계표시와 모음 다음에서 [+consonantal]이 무표적이라는 SPE식 기술보다 음절초에서 [+consonantal]이 무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음절이 본절음 배열제약을 언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영어의 단어에서 /t/로 시작되는 단어가 없는 대신에 단어 중간에서는 /t/로 연속될 수 있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tlay이란 단어가 없는 반면에 Atlantic이란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술하면 좋은가.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t/의 연결체가 음절초에는 올 수 없다는 사실로 요약 될 수 있다. 바꿔말해, Atlantic이란 단어는 A-tlan-tic으로 음절화 될 수 없으며, At-lan-tic으로 음절화 됨으로써 /t/이 음절초에는 허용될 수 없다.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Kahn(1976: 34)이 제시하는 가상의 단어인 *atktin이란 단어를 보자. 이 단어는 왜 영어의 가능한 단어가 될 수 없는가. 그것은 먼저 /tk/가 영어의 첫 음절의 마지막 위치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두개의 저해음이 연속해서 음절말음을 이룰 때 가장자리 쪽에 있는 저해음은 [+dental]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kt/도 둘째 음절의 첫 위치에 나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음절두음에 두 개의 저해음이 올 경우, /t/앞에 오는 저해음은 어디까지나 /s/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tktin이 영어의 가능한 단어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절이란 단위에 의존하여 언급할 도리밖에 없다. 본절음 배열제약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절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SPE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절을 음운기술의 단위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음운규칙의 적용영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세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절음 배열제약을 설명력있게 언급하기 위해서도 본절음이나 형태소가 아니라 음절에 기반을 두어 음운기술을 해야 한다.

Ⅲ. 음절의 모형

음절을 일단 음운기술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채택된 음운단위인 음절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특히, 음절은 운율계층의 최소 구성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음절의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해 두어야 한다.

음절의 구조가 어떠한 모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Vincent(1986: 305)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럼, 선형적(linear)인 모형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계층적(hierarchical)인 모형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는 종래의 전통적인 음절구조를 포함하여 Vennemann(1972,1974)과 Hooper(1972,1976)등의 자연생성음운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음절을 분절음의 단순한 배열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여기서는 cat이란 단어의 음절구조를 음절경계표시인 \$를 도입하여 /\$kaet\$/으로 표시한다. 이 선형적 음절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Selkirk(1982), Lass(1984), Vincent(1986)등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처럼 음절을 운율계층의 중요한 단위로 파악할 경우에는 선형적 음절구조를 논하지 않아도 되므로, 본장에서는 이를 제외하겠다.⁷⁾

한편 후자는 음절을 최초로 비단선적으로 보는 Kahn(1976) 이후 복선음운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음절을 분절음의 계층적 조직으로 파악하는데 관심을 둔다. 음절을 단순히 분절음의 앞뒤에 경계표시를 삽입함으로써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음 보다 상위 단계에 존재하는 계층적 단위로 받아 들인다. 예를들어 cat이란 단어의 음절구조를 통사론의 수행도처럼 계층적 수행으로 표시한다.

음절을 운율계층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는 후자의 음절구조를 다시 나누면 음절을 형성하는 각 구성요소가 분지적(branching)인가 아니면 평면적(flat)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분지적인 음절구조란 음절을 이루는 음절두음(onset)과 각운(rhyme) 또는 음절핵음(nucleus)과 음절말음(coda)이 양분적으로 구조화 되는 것이며, 평면적인 음절구조란 그 구성요소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본절에서는 음절구조에 대한 최근의 입장을 두 가지의 모형, 즉, 분지적인 모형과 평면적인 모형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살펴보고, 영어의 음절구조는 이 가운데 어떠한 모형을 택해야 바람직한지를 논하려고 한다.

3.1 분지적 음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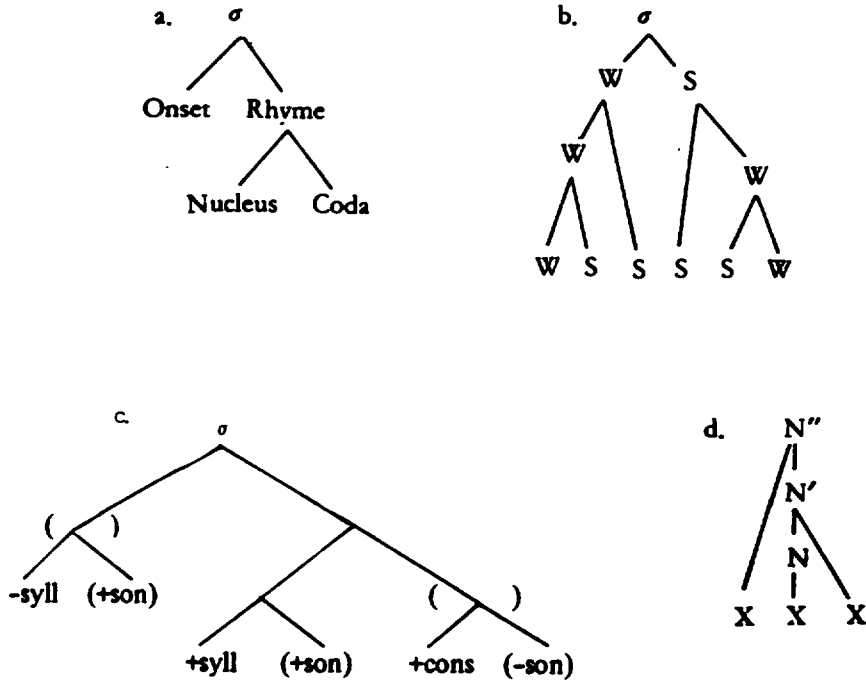
음절을 맨처음으로 분지적 구조로 취급한 것은 Pike & Pike(1947)이다. Pike & Pike(1947)은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하나인 Mazateco어의 음절을 직접구성성분(immediate constituents)으로서의 margin과 nucleus의 결합으로 분석한다.⁸⁾그들은 음절을 주변음과 핵음으로 구성된다고 함으로써 음절의 구조를 분지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Fudge(1969), Vergnaud & Halle(1978), Kiparsky(1979), Kaye & Lowenstamm(1981), Selkirk(1978,1982), Harris(1983), Levin

7) 선형적 음절구조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음절경계를 정확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8) 물론 여기서 margin은 음절의 onset이나 coda를 가리킨다.

(1984), Vincent (1986) 등도 분지적 음절구조를 주장한다. 그들의 음절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분지적 음절구조를 선호하는 논증의 근거로 분절음 배열계약 강세배당규칙, 발화실수, 말놀이, 시에서의 각운의 역할 및 음장(length)의 문제를 제시한다. 그들은 이러한 내적또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 음절두음과 각운이 분지되며, 각운은 또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으로 구성되어야 타당하다고 믿는다.

예를들어 Vergnaud & Halle(1978), Selkirk(1978), Hulst & Smith(1982) 등은 한 언어의 분절음 배열계약을 검토해 볼 때,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2) a. Whereas practically any onset can be combined with any rhyme to form a proper English syllable, there are severe limitations on what peak can precede what coda(Vergnaud & Halle, 1978 : 17-18).

- b. The grouping of peak and coda into a constituent is advocated as a universal of syllable composition by KURYŁOWICZ (1948), one reason for this being similar to Pike's. The claim made is that co-occurrence restrictions between peak and coda are always more likely to exist (and indeed are quite common) than are restrictions between either peak or coda and the onset. The explanation offered is that the former two comprise a constituent (Selkirk, 1978: 4).
- c. For example, co-occurrence restrictions are not usually applicable to the syllable initial consonant(s) and the following vowel, whereas restrictions between the vowel and its succeeding consonant(s) are extremely common (Hulst & Smith, 1982: 38)

위 세가지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절핵음(syllable nucleus)과 음절말음(coda)간의 제약이 음절 두음(onset)과 음절핵음 또는 음절두음과 음절말음간에 일어나는 제약보다 더 흔하기 때문에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은 하나의 구성요소인 각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음절은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분지되고 각운은 다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으로 분지되어 전체적으로 분지적 음절모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영어에서 음절핵음이 단모음이 오는 ban, Anne 등은 음절 말음이 달려야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ba처럼 불가능한 단어가 됨으로써 음절핵음과 음절말음간에 제약이 음절두음과 음절말음간에 제약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Vergnaud & Halle(1978), Halle & Vergnaud(1980), Vincent(1986) 등은 강세할당규칙이 음절의 두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음절의 각운이 단모음인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음절을 우선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양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Fudge(1987)는 발화실수와 말놀이에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어 발화시 실수를 보이거나,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말놀이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Pig Latin 문법에서 street이 /i : tstre/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은 서로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의 밀접한 단위를 이루어 행동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Hogg & McCully(1987: 37)는 시에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각운이라 할 수 있는 단일 구성요소를 이루며, 그 구성요소야말로 시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Selkirk(1980: 6)은 모음의 길이는 음절핵음과 뒤따라 오는 음절말음의 유무성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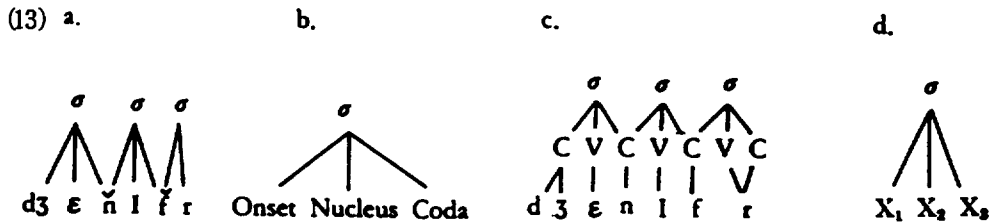
영어가 과연 어떠한 음절구조를 취해야 바람직한지는 이들 여러 증거를 검토해야 가능하다. 바꿔말해 위에서 제시한 여러 내적, 외적인 증거를 영어에서 찾아야 적형적인 음절구조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평면적 음절구조의 특성을 검토한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3.2 평면적 음절모형

음절을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다시 각운을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으로 나누는 본지적 음절구조와는 달리 평면적 음절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음절두음, 음절핵음, 음절말음이 평면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 입장은 겹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음절구조나 자연생성음운론의 선형적인 음절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전자가 음절을 비단선적인 것으로 취급한 반면에 후자가 음절을 계층적인 단위로 받아 들이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음절두음, 음절핵음, 음절말음이 평면적으로 나란히 연결된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a)는 음절을 최초로 비선형적인 입장에서 다룬 Kahn(1976)의 음절구조로서 본절음층보다 상위에 음절층을 인정하는 것이다. (13 b)는 음절두음, 음절핵음, 음절말음이 상호간에 서로 똑같은 관련을 맺는다고 보는 Davis(1982)의 음절구조이다. (13 c)는 음절층과 본절음층 중간에 CV층을 두어 삼층적 음절구조를 나타내는 Clements & Keyser(1983)의 음절모형이다. (13 d)는 음절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본 Nespor & Vogel(1986)의 음절구조이다.

평면적 음절구조를 지지하는 증거로는 앞에서 제시한 본지적 음절구조를 밝힐 때 이용한 증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본절음 배열제약, 발화실수, 말놀이를 통해 음절을 구성한 증거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본절음 배열제약, 발화실수, 말놀이를 통해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가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 입장의 핵심은 분석하는 언어의 음절핵음과 음절말음간의 제약이나 그것을 단위로 한 발화실수, 말놀이 현상에 못지 않게 음절두음과 음절핵음 및 음절두음과 음절말음간의 제약, 발화실수, 말놀이 등이 중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평면적 음절구조를 옹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그 구조가 본지적 음절구조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이다. 본지적 음절구조는 원칙상 무한한 범위로 계속 분지되어야 하지만, 평면적 음절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간결성이 있다는 것이다.(Nespor & Vogel, 1986 : 8-9).

왜냐하면 분지적 음절구조는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구조로 묶일 수 있듯이, 복잡한 그리고 음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가 생기는 반면 평면적 음절구조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같은 평면적 음절구조에 대한 증거가 과연 영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3.3 영어의 음절모형

지금까지 분지적 음절구조와 평면적 음절구조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어의 음절구조는 어떠한 모형을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미 지적한대로, 영어의 음절구조가 분지적인지 아니면 평면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여러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진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분지적인 구조를 영어의 적절한 음절구조라 고집하게 되면, 평면적인 구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평면적인 구조를 영어의 적형적인 음절구조라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분지적인 구조의 장점을 취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음절구조가 분지적인지 또는 평면적인지를 밝힌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어느 한 구조가 반드시 옳다는 주장은 자칫 어느 한 구조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 예를들어 분지적 음절구조에서는 분절음 배열제약에 대한 증거로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간에 긴밀한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음절핵음이 단모음인 단어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음절말음이 채워져야 하며⁹⁾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장모음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증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Davis(1982)나 Clements & Keyser(1983)는 음절핵음과 음절말음간에 제약 못지 않게 음절두음과 음절말음, 또는 음절두음과 음절핵음간에도 제약된다고 한다. 예를들어 음절두음에 두개의 자음이 위치하고 음절말음에 하나의 자음을 올 때 음절두음의 둘째 자음과 음절말음의 첫째 자음은 똑같이 나타날 수 없다. 이를테면 *flii, *plii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음절두음 /f, v, s, z, θ/ 등은 음절핵음 /u : r/ 앞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발화실수, 말놀이의 증거에도 꼭 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지적 음절구조가 완벽하게 타당하다거나 평면적 음절구조가 빈틈없이 타당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음절구조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절핵음과 음절말음간의 제약이 음절두음이나 음절핵음 또는 음절두음이나 음절말음간의 제약보다 더

9) 자세한 것은 Hogg & McCully (1987), Fudge(1987) 참조.

흔하게 더 많이 일어나며 또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을 단위로 한 발화실수나 말놀이 현상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을 일단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Fudge(1989: 219)의 견해도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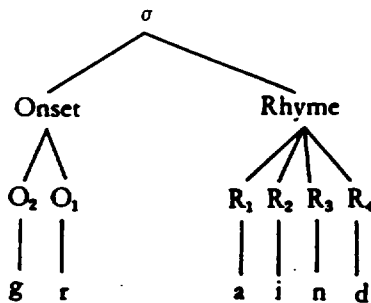
My case for recognizing Onset/Rhyme as the constituent split within the syllable (rather than Onset/Nucleus/Coda or {Onset+Nucleus}/Coda) rests not on the EXISTENCE of errors, word games, etc. in which this is the major break, but on the PREPONDERANCE of such cases over other types of errors, word games, etc.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음절을 우선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나누는 것은 발화실수와 말놀이 등의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간의 제약이 구조가 다른 구성요소간의 제약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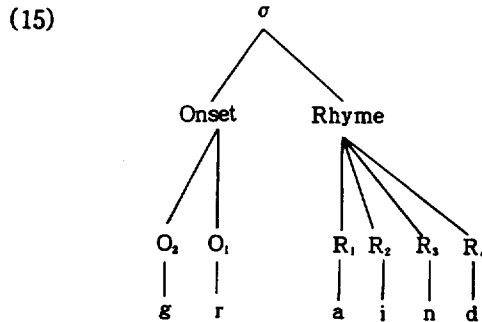
본절에서는 음절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찬반 논증이 이처럼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어의 음절을 일단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운을 다시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으로 양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간구조를 분명히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간결성의 면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각운에 대해서만은 그냥 평면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고 간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분지적 음절구조와 평면적 음절구조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으므로 영어의 음절구조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바람직한 음절구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음절이란 단위는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분지된다는 점에서는 분지적이거나 각운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평면적이다. 이 음절구조를 수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이를 Durand(1986)의 의존음운론(dependency phonology)의 용어인 중심체(head)개념을 도입하여 도표화 하면 필자의 음절구조는 아래와 같다.



위 도표는 음절을 먼저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분지되며, 음절두음은 O_2O_1 이란 두개의 자음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 주면서 동시에 각운은 $R_1 R_2 R_3 R_4$ 의 네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음절두음의 두 자음층 O_1 이 음절두음의 중심체가 되며, 각운에서는 R_1 이 중심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

그러면 왜 필자가 (15)와 같은 음절구조를 영어의 타당한 음절구조로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고찰한 영어의 강세규칙에서 강세의 할당은 음절의 각운이 단모음으로 끝나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영어에서는 VV나 VC의 구조로 된 중음절은 강세를 받고 V로 끝나는 경음절은 강세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강세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각운이 어떠한가에 의존하며 음절두음의 구조가 어떠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입장을 뒷받침하는 Halle & Vergnaud(1980), Hayes(1981), Vincent(1986)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16) a. -in all languages known to us, stress assignment rules are sensitive to the structure of the syllable rime, but disregard completely the character of the onset (Halle & Vergnaud, 1980 : 93)
- b. Accent rules are almost always sensitive only to the number of segments in the rime, not in the onset (Hayes, 1981 : 12).
- c. First, it is often the case that 'weight' of the syllable for metrical purposes is calculable only by reference to the components of the rhymeOn closer inspection, however, it is clear that what matters is the weight of the rhyme, since the nature of the onset is irrelevant (Vincent, 1986 : 312).

특히, 영어의 강세규칙이 각운의 경중(weight)에 달려 있다는 것은 평면적 음절구조를 주장하

는 Clements & Keyser(1983)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분절음 배열계약, 발화실수, 말놀이 등의 증거를 반박하는 입장에 서지만 강세규칙에서 각운 역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어의 강세규칙이 음절두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운의 분지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런 사실이 분지적 또는 평면적 구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인정되고 있으므로 영어의 음절은 음절두음과 각운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절음 배열계약을 간단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15)의 모형을 영어의 타당한 음절구조로 삼아야 한다. 바꿔말해 (15)의 음절구조를 택해야 분절음 배열계약의 서투른(clumsy) 기술을 피할 수 있다.¹⁰⁾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명확한 단위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clamp와 ground는 허용가능하나 *claimb나 *pounk가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잡하게 기술할 수 밖에 없다. 즉, clamp의 경우 m은 음절말음의 일부가 아니고 음절핵음의 일부인 반면 *claimb나 *pounk의 m이나 n은 그 앞 음절핵음이 강모음이기 때문에 음절말음의 일부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ground의 경우에는 C₂의 위치에는 [+coronal]이란 계약을 달아 두어야 한다.¹¹⁾ 따라서 이 두가지 해결책으로는 비음의 구조를 애매하게 만드며, 동시에 음절말음의 구조가 음절핵음에 의존한다는 번거로운 분석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만약 (15)의 음절구조로 분석하게 되면 R₁의 위치에는 [+coronal]인 저해음으로 채워진다는 조건을 적용시키면 되므로 아주 간단해진다. 이 조건에 따라 *claimb나 *pounk는 R₁의 위치에 [+coronal]이 아닌 b나 k가 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단어가 되며, ground의 d는 [+coronal]이므로 가능한 단어가 된다. 물론 clamp의 -amp는 R₁, R₂, R₃로 연결된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각운이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의 구조로 나누어 진다는 분석보다는, 각운이 R₁, R₂, R₃, R₄의 평면적인 연결로 되어 있다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

셋째, (15)같은 음절구조는 중간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만큼 간결한 모형을 이루고 있다. (15)의 모형은 분지적 음절구조에서 볼 수 있던 중간구조의 복잡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분명한 구조를 형성하는 분지적인 모형에서는 음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중간 단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음절구조에서는 그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만큼 각운의 구조가 분지적 음절구조에서보다 간단하다는 것이다.

물론 음절구조의 간결성에 대해서는 더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음절구조 자체만을 두고 이야기 할 때는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분명한 단위가 된다는 분석이, 그러지 않

10) 이에 대해서는 Hogg & McCully(1987: 46) 참조, Selkirk(1984a: 119-123)도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으나, 분절음 배열계약을 명확히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볼 때 꼭 마찬가지로 입장이라 말할 수 있다.

11) 물론 이 경우 C₂란 것은 각운을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음절말음의 둘째 위치에 해당한다.

는 분석에 비해서 간결성의 관점에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경우, 하나의 중간구조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절핵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본지적 모형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이론적으로 무한한 깊이의 수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중간구조를 없앤다는 것은 많은 수의 중간 단계를 줄인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간결해지게 된다.

특히 운율계층의 중요한 단위로서 음절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음절이 음보로, 음보가 단어로 운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음운론적으로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가적 구조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운율구조를 표시할 때 아주 중요한 뜻을 지닌다.

네째, (15)의 모형을 영어의 적절한 음절구조로 삼는 또 다른 근거는 CV층을 설정했을 때 생기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데도 있다. CV음운론의 CV층은 전통적인 자음과 모음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음성 또는 모음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음이라 할 지라도 공명도가 큰 음절적 기능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V와 연결되며, 모음이라도 C요소에 연결되는 수도 있다.¹²⁾ 또한 CV층의 VC가 하나의 모음이나 자음과 연결될 수 있으며 공명도가 적은 자음은 C와 연결된다. 이같은 분석은 기저구조에 V로 나타나던 것이 음운규칙의 적용에 의해 표면구조에 C로 도출되거나 또는 기저구조에 C로 나타나던 것이 음운규칙의 적용을 통해 V로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 C와 V의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제시해 주지만, 중간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15)의 모형에서는 rhyme의 첫 두 구성원을 모음에 연결하고 그 밖의 구성은 자음과 관련시키면 되므로 CV음운론에서 보다 훨씬 타당한 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영어의 음절구조는 반은 본지적이고 나머지 반은 평면적인 (15)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5)의 음절구조는 본지적이거나 평면적인 구조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 단점은 최대한 피하는 일종의 절충식 음절구조인 셈이며, 특히 음절두음과 각운의 중심개념을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영어교육에의 적용

앞에서 필자는 영어의 음운현상을 간결히 설명하고 강세현상을 적절히 기술하며, 본절음 배열 제약을 설명력있게 언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절이 음운기술에 도입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영어의 기식음화, 성문음화, 설탄음화등은 Kahn(1976)이 주장한대로, 본절음이 아닌 음절에 기반

12) 예를들어 영어의 yes와 wet의 첫 본절음은 기저표시에서 /i/와 /u/로서 이는 실제로 모음이지만 C와 연결된다.

을 두었을때 간결히 기술될 수 있으며, 강세현상도 SPE식으로 분절음 위주로 기술되는 것보다 음절크기의 단위로 분석될 때 더욱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음운기술에서 음절이란 단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의미있게 인식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분절음 위주로 영어의 자음과 모음 및 변이음들을 분류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정작 발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음운단위가 제대로 취급되지 못했다. 예를들어 영어단어 Christmas 란 단어는 원래는 2음절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분절음 중심으로 발음을 가르치다보니 5음절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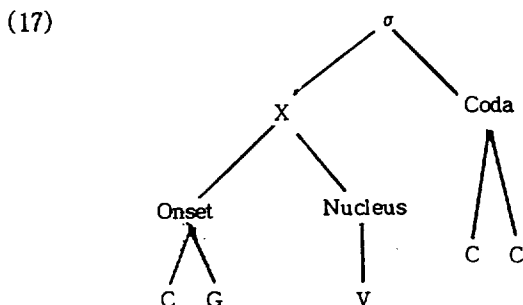
이같은 비정상적인 발음이 생겨난 원인은 우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영어의 음운현상에서 음절이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학생들도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익숙해 있어서 영어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이같은 학습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미 논한 음절이론을 적용하여 그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학습상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4.1 한국어의 음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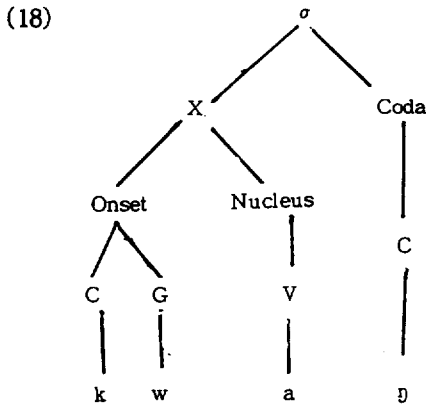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연구해온 관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을 선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요소가 계층적으로 조직화 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허 웅(1989), Kim & Shibatani(1976), Kim-Renaud(1978) 등이 취하는 것이며, 후자는 김차균(1987), 안상철(1988), 김종훈(1990) 이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선형적인가 또는 계층적인가에 대해서는 영어의 음절모형을 논할 때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음절강세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음절구성 요소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밖에 여러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음절구조도 후자의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후자의 음절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영어의 음절구조와는 달리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음절두음과 음절말음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조이다. 물론 (17)의 구조는 표면상에 나타나는 음절구조가 아니라 기저표시에서 최대를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기저 단계에서는 한국어에서 음절핵음인 V를 중심으로 음절두음에 최대 자음 하나 반모음 하나 음절말음에 최대 자음이 두개까지 올 수 있다.

그러나 발음교육에서는 기저의 음절구조보다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구조가 중요하므로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음성적으로 표시하면 최대 CGVC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어의 "광"이란 단어를 계층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영어의 음절구조는 전장에서 논한 기본 음절구조를 확장했을때, V를 중심으로 음절두음에 자음이 최대 셋까지 올 수 있고 음절말음에는 자음이 넷까지 올 수 있다. 예를들어 "strengthened"이란 단어의 구성요소는 CCCVCCCC로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음성적으로 최대음절이 CGVC이며, 영어의 경우는 CCCVCCCC의 형태로서 그 구조가 전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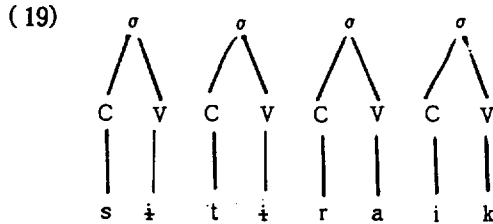
4.2 학습상의 문제점

이러한 상이한 음절구조로 인해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영어의 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맞도록 재분절함으로써 학습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단어를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모음인 /i/나 /i/를 삽입시킴으로써 학습상의 문제가 된다는 점은 김순택(1976), 김기섭(1977), 정국(1988) 등이 잘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단어를 배울때에는 표면음성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i/의 모음을 C와 C사이나 CC뒤에 삽입시킨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학생들은 constraint, loved, apt, acts, strike, each, edge 등은 [kɒnsɪ'reɪntɪ], [lʌvɪd], [æptɪ], [æktɪs], [sɪ'traɪk], [ɪtʃɪ], [edʒɪ] 등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ɪ/ 대신 /i/를 삽입하는 경우는 each나 edge 등에서처럼 치경구개음(alveopalatal)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음절을 계층적인 단위로 보는 최근의 음절론에서 영어단어 strike가 어떻게 학습상의 문제가 되는지는 정국(1988)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어의 경우는 음절핵음인 V를 중심으로 음절초에 최대 C하나 G하나, 그리고 음절말에 최대 C하나 이상은 올 수 없으므로 [straɪk]는 V를 중심으로 왼쪽 C하나까지 밖에 음절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트라이크" 또는 "스트라이크"식으로 /s/모음을 삽입시켜 한국어식으로 영어단어가 음절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는 영어단어를 완전히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맞도록 재분절함으로써 틀린 발음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상의 난점을 지도할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다.

4.3 지도방안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단어를 발음할 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모음을 삽입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어단어를 받아들일 때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맞도록 짜맞추지 않고 영어다운 영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서는 앞서 논한 음절이론을 적용시켜 발음지도의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4.3.1 음성적 지도

음성적으로 올바른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우선 음절구조가 간단한 것부터 점차 복잡한 구조를 지닌 단어를 연습시켜야 타당하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음절구조가 간단한 것부터 학습시켜야 학습자로서의 음절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린이는 ma, ta 등 가장 간단한 음절구조부터 배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음절두음에 자음이 하나 있는 단어에 대한 지도를 들 또는 셋을 허용하는 단어에 대한 지도 보다 먼저 행해야 한다. rap이란 단어를 먼저 학습시키고 이어서 trap이란 단어를 훈련시키며, 마지막으로 strap이란 단어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타당성은 Prator & Robinette(1985; 184)에서 이른바 세단어를 밑에서 쌓아 올라가기 (build up)방식으로 연습시켜야 한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s/와 폐쇄음이 결합되는 단어에서 /s/를 탈락시켜 발음하는 데서도 역설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다¹³⁾.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stop을 top으로 spit을 pit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간단한 음절구조를 지닌 단어부터 먼저 습득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의 음절을 갖는 단어인 rap에서 시작하여 trap및 strap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우선 rap이란 단어의 음절두음 /r/은 /l/과 최소대립을 이루도록 하여 rap-lap의 짝을 훈련시킨다.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r]과 [l]은 심리적으로 다른 음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는 같은 음으로 인식되는 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입술을 /w/를 발음할 때 처럼 하여 곧바로 rap을 발음하도록 한다. 다음 trap이란 단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t/와 /r/ 사이에 모음을 삽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ttr] 처럼 처음에는 /t/를 길게 발음함으로써 불필요한 모음을 삽입시키지 않도록 하며, 그 후 정상적인 속도로 [tr]을 발음시킨다. 마지막으로 strap의 경우 음절두음 [s]를 길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고 이어서 trap과 같은 과정을 밟아 정상속도로 발음시키면 된다.

이 지도방안은 Lado & Fries(1961; 154)에서 시사점을 얻은 것이며, 실제로 Paul & Bruder(1976)이나 Prator & Robinette(1985; 183-184)에서 유사한 발음지도법이 채택되고 있다.

4.3.2 최적 음절구조 인식

다음으로 음절이론이 영어의 발음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영어의 최대 음절구조는 CCCVCCCC의 유형이지만 최적의 음절구조는 CV로서 발음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Jacobson(1941), Malmberg(1963), Shane (1973)이나 Hyman(1975) 등에 의해 가장 기본적이며 어린이들이 배우기 쉬운 음절구조로 밝혀진 이 구조는 발음교육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음의 상실과 융합 등의 음변화 과정이나 음운작용을 통해서 복잡한 음절구조를 최적의 음절구조인 CV로 바꾸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CV구조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발음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모음이 비음화되거나 자음군이 단음화되는 현상을 비롯하여 모음축약 및 연음작용은 원래의 복잡한 음절구조를 버리고 최적 음절구조인 CV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의 다음 문장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 (Hatch, 1983 : 27)

13) 이점에 대해서는 Bond & Wilson(1980 : 149-150) 참조.

1. <i>nasal position & V nasalization</i>	si/ya/n/tɛ/mi/nɛts CV/CV/C/CV/CV/CVCC i/kæ/pi/dən V/CV/CV/CVC	See you in ten minutes. It can't be done.
2. <i>cluster simplification</i>	gi/mi/ðə/ki CV/CV/CV/CV	Give me the key.
3. <i>vowel reduction</i>	i/pu/tə/tɛ/nəs/kar V/CV/CV/CV/CVC/CVC	He put it in his car.
4. <i>liaison</i>	di/di/faɪn/dit CV/CV/CVC/CVC	Did he find it?

따라서 영어 발음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음절이란 단위가 필수적임을 거듭 이해해야 한다. 분절음에만 집착하다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문장의 뜻을 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된다.

4.3.3 음절구분법 지도

음절이론이 영어교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영어단어를 어떤식으로 음절로 나눌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영어교육에서 음절구분의 중요성은 정국 (1988:389)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영어의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몇 음절인지 그리고 어떻게 음절구분을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국(1988)에서는 영어의 음절의 구분 방법을 먼저 맨 가운데 V를 찾고 다음으로 앞의 자음을 최대 3개 까지 찾으며 마지막으로 뒤의 자음을 찾는 식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실제로 영어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식으로 음절을 구분하면 좋은지를 제시하겠다.

첫째, 단어의 연결구조 속에서 두개의 모음이 연속되면 두 모음 사이에서 음절을 구분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chaos, cruel, biology, reality 등은 cha-os, cru-el(ty), bi-o(logy), re-a(lity)식으로 음절구분이 된다.

둘째, 두 모음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오고 두번째 요소가 강 (strong)이면 그 자음은 둘째 음절에 오도록 분석된다. 예를들어 vacation, repent 등은 va-ca(tion), re-pent 식으로 음절화된다.

셋째, 두 모음 사이에 sc-, cr-, cl-, cw-, scr- 등의 자음군이 오고 그 다음이 강이면 그 자음군은 그 강모음과 음절을 이루도록 한다. 가령 decline, require, suspence, distress 등은 각기 de-cline, re-quire, su-spence, di-stress 식으로 음절구분을 할 수 있다.

넷째, 분절음 배열계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음절두음이 최대의 자음을 갖도록 한다. 예를들어 candy, atlas, shelter, emblem 등은 can-dy, at-las, shel-ter, em-blem 등으로 음절이 구분된다. 이 단어들이 ca-ndy, a-tlas, she-lder, e-mblem식으로 음절화 되지 못하는 것은 영

어의 단어들은 각기 nd나 tl, lt, mb 등으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음절핵음에 강세를 받는 단모음이 올 때, 그 다음 자음은 같은 음절에 오도록 한다. 예를들어 salad, weapon, packet 등은 sal-ad, weap-on, pack-et 등으로 음절이 구분된다.

여섯째, 음절핵음이 장모음 또는 이중모임일 때 그 다음 자음은 다음 음절이 두음이 되도록 분절한다. 예를들어 final, rival 등은 fi-nal, ri-val 등으로 음절이 구분된다.

이같은 음절구분 방법이 발음교육에 반드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사인 record와 동사인 record의 음절구분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명사인 record의 음절구분은 전술한 음절구분 방법중 다섯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rec-ord로 나뉘지며, 동사인 record는 첫번째 원칙에 해당하여 re-cord로 구분된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record의 /k/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명사의 /k/는 음절말에 오고 있으므로 비개방성 /k¹/로 발음되며, 동사의 /k/는 음절초에 오고 있으므로 기식음화한 /k^h/로 발음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음절구분이 영어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V.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음절이론을 영어교육에 적용시켜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오발음을 지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음절이란 단위는 영어의 여러 음운현상을 간결히 기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서 발음교육에서도 본절음의 발음보다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운단위임을 간과할 수 없다. constraint란 본절음을 아무리 잘 발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5음절로 인식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음절이론을 영어교육과 관련시키는 연구야말로 올바른 발음지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인 셈이다. 음절은 필자가 밝힌대로 영어의 음운현상을 간결히 규칙으로 나타내거나, 강세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리고 배열제약을 명확히 나타낼 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계층적인 단위로서 그 구조 또한 선형적이라기 보다는 계층적으로 조직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양언어의 음절 구조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불필요한 "으" (ㅎ)모음을 삽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성적 지도와 음운적 지도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데 전자의 방안으로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간단한 음절구조를 갖는 단어부터 복잡한 구조를 지닌 단어를 단계적으로 조음하는 과정을 밟아야 타당하며, 후자의 방안으로서는 양언어의 음절구조, 특히 최적 음절구조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음절을 구분하는 여섯가지 법칙을 인식시켜야 한다.

문장의 리듬이 음절에서 시작하여 단어강세, 문장강세의 절차를 따라 지도 되어야 된다는 음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앞으로 올바른 발음지도와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섭, "한국학생들의 영어 오류음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1977.
- 김순택, "A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consonants." Unpublished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1976.
- 김종훈, 음절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0.
- 김차균,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절해 안에 일어나는 음운론적 과정", 말 12 : 25-69, 연세대학교 연구소, 1987.
- 안상철, "A revised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언어 13.2 : 333-362. 한국언어학회. 1988.
- 정 국, "음운론의 제 이론과 외국어 발음교육." 영어영문학 34.2 : 363-396. 한국영어영문학회. 1988.
- 허 용, 국어음운학. 서울 : 샘문화사, 1989.
- Anderson, S.R.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4.
- Bloch, B. & G.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 Bond, Z. S. & H. F. Wilson. "/s/ plus stop clusters in children's speech." *Phonetica* 37 : 149-158, 1980.
- Chomsky, N. &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1968.
- Clements, G. N. & S. J. Keyser. *CV Phonology*. Cambridge : MIT Press, 1983.
- Davis, S. "Rhyme , or reason? a look at syllable-internal constituents." *Berkeley Linguistic Society* 8 : 525-532, 1982.
- Durand, J. ed. *Dependency and Non-Linear Phonology*. London : Croom Helm, 1986.
- Durand, J. "French liaison, floating segments and other matters in a dependency framework." In Durand J. ed. 161-201, 1986.
- Fudge, E. C, "Syllables." *Journal of Linguistics* 5 : 253-286, 1969.
- _____. "Branching structure within the syllable." *Journal of Linguistics* 23 : 359-377, 1987.
- _____. "Syllable structure : a reply to Davis." *Journal of Linguistics* 25 : 219-220, 1989.
- Giegerich, H. "Relating to metrical structure." In Durand J. ed. 223-256, 1986.
- Halle, M. *The Sound Pattern of Russians*. The Hague : Mouton, 1959.
- Halle M. & J. R. Vergnaud. "Three dimensional phonology."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1 :

- 83-105, 1980.
- Harris, J. W. *Syllable Structure and Stress in Spanish : A non-linear analysis*. Cambridge : MIT Press, 1983.
- Hatch, E. M. *Psycholinguistics* Rowley.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83.
- Hayes, B. A. *A Metrical Theory of Stress Rules*. Doctoral Dissertation, MIT,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81.
- Hoard, J. E. "Aspiration, tenseness, and syllabification in English." *Language* 47 : 133-140, 1971.
- Hockett, C. F. "A manual of pho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21. No. 4. Part I. Baltimore : Waverly Press, 1955.
- Hogg, H. & C. B. McCully *Metrical Phonology : A course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ooper, J. B. "The syllable in phonology theory." *Language* 48 : 525-540, 1972.
- _____.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6.
- Hulst, H. van der & N. Smith "An overview of autosegmental phonology and metrical phonology." In Hulst, H. van der &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 Dordrecht-Holland : Foris Publications. 1-45, 1982.
- Hyman, L.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5.
- Jacobson, R. *Child Language, Aphasia, and Phonological Universals*. Translated by Allen R. Keils. The Hague : Mouton, 1941.
-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effer & Sons Ltd. 1956.
- Kahn, D.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76.
- Kaye, J. D & J. Lowenstamm "Syllable structure and markedness theory." In Belletti, A. Brandi L. & L. Rizzi. 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Pisa. 287-316, 1981.
- Kim, K. O. & M. Shibatani. "Syllabification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2.1, 1976.
- Kim, Y. K.-Renaud. "The syllable in Korean phonology."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 W. Kim. ed. Columbia, S. C. : Harnbeam Press. 85-98, 1978.
- Kiparsky. P.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 421-441, 1979.
- Kohler, K. J. "Is the syllable a phon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Linguistics* 2 : 207-208, 1966.

- Kuryłowicz, J. "Contribution à la théorie de la syllabe." *Biuletyn Polskiego Towarzystwa Językoznawczego* 8 : 80-113, 1948.
- Lado, R. & C. C. Fries. *English Pronunciation*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 Lass, R. *Phon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Levin, J. "Conditions on syllable structure and categories in Klamath phonology."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3, 1984.
- Malmberg, B. *Phonetics*. New York : Dover Publication, 1963.
- Nesper, M. & I. Vogel. *Prosodic Phonology*. Dordrecht-Holland : Foris Publications, 1986.
- Paul, C. B. & M. H. Brude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ublications, 1976.
- Pike, K. L. *Language in Relation to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2nd ed. The Hague : Mouton, 1967.
- Pike, K. L. & E. V. Pike. "Immediate constituents of Mazateco syll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13 : 78-91, 1947.
- Prator, C. H. & B. W. Robinette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4th ed.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85.
- Selkirk, E. O. "On prosodic structure and its relation to syntactic structure." Unpublished Ms.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78.
- _____.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1 : 563-605, 1980.
- _____. "The syllable." In Hulst, van der & N. Smith eds. Part II. 337-383, 1982.
- _____. "On the major class features and syllable theory." In Aronoff M. & R. T. Oehrle eds. *Language Sound Structure*. Cambridge : MIT Press, 1984. a.
- Schane, A. S.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3.
- Stanley R. "Redundancy rules in phonology." *Language* 43 : 93-436, 1967.
- Vennemann, T. "On the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18 : 1-18, 1972.
- _____. "Words and syllables in a natural generative grammar." In Bruck, A., Fox, R. A. FOX, R.A. & La Glay, M. W.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 Chicago Linguistic Society, 346-374, 1974.
- Vergaud, J. R. & M. Halle 1978. "Metrical structure in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Phonology and Morphology* 3.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1986.
- Vincent, N. "Constituency and syllable structure." In Durand, J. ed. 305-318, 1986.

Summary

The Application of Syllable Theory to English Teaching

Kim Soon-taik

Recent studies on the syllable structure of English have mainly been concerned with such theoretical questions as syllable as phonological unit, syllabl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syllabification.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done which suggest practical guidelines for applying syllable theory to the teaching of English pronunciation in the Korean classroom.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mpleted, however, which compare the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and English from the structuralist perspective of contrastive analysis. Such studies, though, have been incomplete in that they have examined and compared mainly the consonant clusters of the two languages. Little has been done to identify reasons for common difficulties Korean English learners might have in learning proper English pronunciation, or to develop new teaching techniques which address this issue.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apply English syllable theory to the Korean English classroom. It will examine English syllable theory and suggest more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of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